

교회의 회복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

성경: 마 16:18, 계 1:11, 행 14:23, 딤후 1:5, 골 1:18, 2:19

I.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역사(歷史)는 조직이나 운동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역사이다 — 요 1:1, 요일 1:1.

- A.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우리는 회복의 원칙을 본다.
1.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갈 필요가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원래 있었지만 이후에 그것이 타락하거나 손상되거나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을 원래의 상태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 1:1-2, 스 1:5, 6:5.
- B.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본래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타락하였고, 교회를 그 본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C. 교회에 대한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본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엡 1:4-5, 22-23, 3:9-11.

II.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취 그리고 사탄의 파괴하는 일과 관련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해해야 한다 — 엡 3:11.

- A. 신약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먼저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셨고, 그런 다음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개입하셨다 — 계 4:11, 엡 1:4-5, 9, 11, 22-23.
- B. 신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마 16:18, 13:24-32.
1.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에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다.
 - a. 내적인 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다 — 행 5:3.
 - b. 외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 마 13:32.
 2. 사탄은 그리스도의 많은 대치물들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었으며, 성직자-평신도 제도로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죽였다 — 골 2:8, 계 2:6, 14-15.
- C.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확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분을 멈추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파괴하는 일 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하신다 — 스 1:3-11, 6:3-5.
- D.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취하신 것을 다시 하시는 것이 그분의 회복이다. 이것은 사탄에 의해 상

실되고 파괴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본래의 의도에 따라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 마 19:8, 16:18.

III. 교회를 회복하는 것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을 알아야 한다.

A. 교회의 본래 상태는 다음의 특징들을 지녔다.

1. 본래의 교회 안에는 믿는 이들 사이의 계급 제도가 없었다 — 롬 12:4-5.
 - a. 믿는 이들은 모두 형제들이며 지위의 구별이 없었다 — 마 23:8.
 - b. 몸의 지체들로서 믿는 이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동역했으며, 각각의 믿는 이는 자신의 특별한 기능을 다하였다 — 롬 12:4-5.
 - c.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었고, 중간 계급이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었다 — 벧전 2:5, 9.
2. 초대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었다. 초대 교회는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 롬 12:2, 요일 2:15, 고후 6:14-17.
3. 본래의 교회는 우상들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완전히 허락해 드렸다 — 요일 5:21.
4. 한 지방에는 오직 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현만 있었다 — 고전 12:27, 1:2, 계 1:11.
5. 교회들은 교통 안에서 하나였지만, 각지의 교회는 행정에 있어서 독립적이었으며 우두머리 교회나 연맹이 없었다 — 고전 10:16.
6. 교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했으며, 성령께서 권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렸다 — 골 1:18, 2:19, 행 13:1-2, 10:19-20, 11:12.

B. 교회의 타락은 계급 제도, 세상과의 연합, 우상들, 분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음, 통합을 위해 조직을 가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강탈하고 성령의 권위를 침해함과 관계있다.

IV. 교회의 회복은 점진적이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 A. 1세기가 끝나 갈 무렵에 주님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매 세기마다 회복이 계속 이어져 왔다 — 딤후 2:19-26.
- B.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봉인된 성경이 열렸다. 루터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회복했지만 합당한 교회생활은 회복되지 않았다 — 롬 1:17.
 1. 개신교 교회들은 세상과 분별되지 않았으며, 중간 계급을 없애지 않았다.
 2.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에는 더 많은 분열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교파들이 통합을 위한 조직을 버리지 않았다.
 3. 교파들은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았고, 성령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았다.
- C. 18세기에 친첸도르프가 주님께 의해 일으켜져서 모라비안 형제들을 인도하여 교회생활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세상과 분별되었고, 계급의 차이를 없앴으며, 교통과 조율을 강조했고, 하나를 지키기를 힘썼으며,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을 제거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렸다.

- D. 19세기에 주님은 영국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을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교회생활의 회복에 있어서 더욱 전진하였다 — 계 3:7-13.
1. 형제회의 손에서 성경은 참으로 열린 책, 빛을 발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을 통해 해방되었다 — 딤후전 2:4.
 2. 그들은 계급 제도를 완전히 없앴고, 모두가 형제들이자 서로 지체들이었으며, 상호 사랑과 상호 교통을 강조하였다.
 3. 그들은 분파주의를 없앴으며 하나(eness)의 증거를 지켰다.
 4.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들은 실패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주님은 서방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전진하실 수 없었다.
- E.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회복에 관한 중대한 요점들을 보아야 한다.
1. 1933년과 1934년에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은 교회가 한 지방을 그 경계로 취한다는 원칙이었다 — 행 14:23, 딤후 1:5, 계 1:11.
 - a. 한 면에서 이것은 분열과 혼돈을 막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 지방을 넘어서는’ 연합도 막는다.
 - b.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직접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책임을 져야 한다 — 골 1:18, 2:19, 행 13:1-2.
 2. 우리는 교회의 행정은 지방적이고 교회의 교통은 우주적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 행 14:23, 2:42, 고전 10:16-17.
 - a.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각자의 행정을 가지며, 교회의 행정은 지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b. 교회의 교통은 단지 지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교회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기 때문에 우주적이어야 한다.
 3. 우리는 서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통합을 위한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직접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며, 직접 성령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골 1:18, 행 13:1-2.
 4. 우리는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강조했다. 즉 우리는 모든 믿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 벧전 2:5, 9.
 5. 우리는 또한 봉사에서 몸의 동역을 강조했다며, 모든 성도들에게 동역 안에서 함께 봉사함으로써 몸의 원칙을 지킬 것을 권유했다 — 롬 12:4-5, 고전 12:12-27.
 6.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지적인 봉사를 강조했다 — 롬 12:5-11.

V.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다르다. 회복과 기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마 13:31-33, 44-46, 계 18:4, 19:1-3, 7-9.

- A. 교회의 회복은 우리를 성직자-평신도 제도라는 비성경적인 제도로부터 이끌어 내어, 신성한 계시에 따라 교회생활을 순수하게 실행하도록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계 2:6, 15, 마 16:18, 엡 2:20-22.
- B. 우리 가운데의 역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이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역사였다 — 스 1:3-11, 6:3-5, 계 18:4.
- C. 지방 교회들과 기독교 사이에는 어떤 다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협이나 가장 없이 우리의 어떠한 그대로서야 하며, 우리와 기독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계 1:11, 갈 1:4.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목표 — 교회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이며, 교회는 단체적인 문제이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일곱 가지 주요 방면, 즉 몸(1:22-23), 새사람(2:15), 왕국(19절), 가족(19절), 하나님의 거처(21-22절),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5:23-32), 그리고 전투원(6:10-20)으로 제시한다. 교회의 이러한 방면들은 모두 단체적인 문제들이다. 수 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해 문제들과 혼란과 분열들이 발생한 이유는 성도들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과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거룩하게 됨, 영적인 필요, 거룩한 말씀을 지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과 일을 위함과 같은 항목들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갈 정도로 복음의 일에 불탈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표만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목표는 유일하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이다.

교회는 다만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회 시대이다.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이다. 교회는 현재를 위한 것이다. 교회는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날의 교회, 즉 이 시대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지는 것이다. 수 세기에 걸쳐서 사랑스러운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빛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표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목표는 놓쳐 버렸다. 주님은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목표에 대해 분명해지기를 갈망하신다.

교회를 손상하는 세 가지 항목

원수 사탄은 교회를 손상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항목, 즉 유대 종교, 헬라 철학, 인간 조직을 사용했다. 이것들이 교회의 분열과 황폐와 부패의 주요 근원이다. 이 세 항목이 교회를 침투했기 때문에 교회의 신실하고 살아 있는 몇몇 지체들이 교회를 수호하고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인간 조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 수호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단체적인 몸, 새사람, 왕국, 가족, 하나님의 거처, 신부, 그리고 전투원인 교회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그들의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범했다. 그들 중 몇몇은 교회를 수호하려고 의도하다가 사실상 교회에게 더 많은 손상을 끼쳤다.

교회 안에 계급 제도를 가져왔음

우리는 이에 대한 한 예로서 2세기에 교회의 강한 지도자이자 수호자였던 이그나티우스를 들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감독 또는 주교가 장로보다 더 높다고 잘못 가르쳤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 또는 주교라고 불렀다(17, 28절). 헬리어 ‘에피스코포스(episkopos)’는 감독이나 주교로 번역될 수 있다. ‘에피(epi)’는 ‘위에’를 뜻하고 ‘스코포스(skopos)’는 ‘보는 이’를 뜻한다. ‘장로’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데 비해, ‘주교’나 ‘감독’은 장로의 책임과 기능을 가리킨다. 장로의 책임과 기능은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다. 주교가 장로보다 더 높다는 이그나티우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장로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하고 주교는 지방의 범위보다 큰 한 권역의 교회들을 위한다는 잘못된 관념이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주교 제도라는 교회 통치 기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또한 오늘날 로마 천주교의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이루어진 계급 제도의 기

원이 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토록 큰 실수를 범한 것은 그가 몸, 곧 한 새사람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서열이 생겨나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결국 교회 안에 계급 제도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와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진리의 수호

초기 교회 시기에 몇몇 위대한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둘 다이시라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이것은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철학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혼합되었을 때, 그것은 모든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가르침인 영지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의 더러움을 지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구속과 부활을 부인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니라고 썼다(요일 4:2-3).

진리의 수호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다른 의견들을 일소시키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관한 연구, 즉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연구인 그리스도론(論)이 태동하였다. 아리우스(Arius)는 그리스도가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고 말한 이단 교사였다. 기원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니케아 신조는 하나님께서 삼일(三一)이시라는 것, 즉 신격에 아버지, 아들, 성령인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리된 세 하나님이 계신다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잠재의식적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리적인 연구나 토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일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며,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으로 분배될 수 있게 되었다. 수박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려면 먼저 쪼개져야 한다. 이 조각들을 씹어 먹을 때 즙이 된다. 온전한 수박, 조각들, 즙을 ‘수박의 삼일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박이 과정을 거쳐 즙이 될 때, 그것은 우리 안으로 쉽게 흡수되어 바로 우리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해 과정을 거치셨고, 이제 그분은 영 하나님이다. 오늘날 그 영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수박즙과 같으시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전 12:13). 성령은 우리가 한 아버지나 한 아들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전한 수박이나 수박 조각들은 마실 수 없으나 그 즙은 마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그 영을 마실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날 ‘즙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다.

신성한 삼일성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계시되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신성한 삼일성은 주님의 부활 후에 계시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된 적이 결코 없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 후에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과정을 거치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박’은 완전히 과정을 거쳐서 ‘즙’이 되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수를 마시라는 부름으로 끝맺는다(22:17). 생명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곧 생명 주시는 영이다. 니케아 신조를 쓴 진리의 수호자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분열

우리가 본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해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의견들은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결국 서방 기독교는 로마 천주교가 되었고, 동방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와 되었다. 기독교의 이 두 큰 줄기 외에도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이 있었다. 이들이 6세기까지 소위 기독교의 세 가지 큰 분파들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분파들 외에도 많은 독립적인 무리들이 있었다. 많은 독립적인 무리들이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인 교회를 천주교, 곧 가톨릭 교회로 명명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하나로서 보편성을 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보편적인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규모의 독립적인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보편적인 교회에 머무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교회를 도울 길이 없음을 보고서 그들 스스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교회 역사를 통해 거듭거듭 발생했다. 거듭해서 독립적인 무리들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무리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를 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주님의 회복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아마도 주님의 회복이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미 2세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신성한 계시가 완성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교회는 하락하였다. 따라서 회복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주님의 회복은 교회에 하락이 들어온 후 즉시 시작되었다. 주님의 회복의 노선은 2세기에 시작되었고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되었다.

수 세기에 걸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독교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 그들은 순수한 양심으로 살고, 성경에서 본 것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해야만 하겠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연된 것이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합당한 교회생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우리는 교파나 초교파나 혹은 비교파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목표를 회복하는 중에 있다. 이 회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나 구원이나 거룩하게 됨의 회복이 아니다. 우리는 앞의 모든 항목들의 회복을 포함하여 교회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

국교회들의 형성

주님의 회복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관한 진리를 옹호하여 섬으로써 뚜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위대한 옹호자였지만, 그 또한 몇 가지 큰 실수를 범했다. 한 면으로 그는 진리를 변호했다. 다른 한 면으로 그는 독일 정부와 제휴하는 실수를 범했다. 정부와의 이러한 제휴가 소위 국교회들, 곧 국가 교회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내가 루터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대단한 정도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방면들에서는 약할 수 있다.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하게 옹호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교황에게 맞서 일어났지만, 교회에 대한 질문에 봉착했을 때는 약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교회는 독일 국교회였다. 그때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전철을 밟았다. 결국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형성되었다. 영국 국교회는 영국 정부와 연합하였다. 심지어 오늘날도 영국 여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다. 덴마크의 왕은 덴마크 루터 국교회의 수장이며, 스웨덴의 왕은 오늘날 스웨덴

국교회의 수장이다. 이것은 루터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루터 자신도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이 약했던 것을 인정했다. 진리의 수호자들 모두가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이 모든 실수들은 한 가지 큰 부족, 즉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이상과 합당한 계시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이다. 주님의 공화로 인해 오늘날 교회의 이상과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에 관한 계시가 매우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인 교회에 대해 분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보호와 균형은 교회에 대한 이상임

내 느낌에 따르면, 위치만 니 형제님은 교회의 머리께서 특별히 금세기에 그분의 몸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였다.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니 형제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니 형제님이 교회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도 위대한 옹호자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는 한, 니 형제님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인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에 대해 매우 분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교회, 몸, 새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단체적인 목표가 우리의 보호 장치이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교회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대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교회를 아는 것과 몸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는 것은 없다. 주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교회생활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회복의 모든 앞선 항목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속생명, 신언에 대한 합당한 이해 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생활의 현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교회의 이상과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관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교리에 의해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한 마르틴 루터를 계기로 종교 개혁이 있는 후, 국교회들은 결국 공허하고 죽은 상태로 전락했다. 그때까지 로마 천주교 안에 남아 있던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 개혁된 교회의 죽어 있음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다. 주님은 귀욤 부인, 로렌스 형제, 페넬롱 신부를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은 외적인 실행이나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고, 다만 속생명의 실재를 주의했다. 신비주의자들로 알려진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속생명의 생생한 실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속생명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개혁된 교회의 공허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신비주의자들도 몸인 교회를 보지 못하여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에게는 몸의 보호와 몸의 균형 잡아 줌이 없었다.

우리가 깊이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의 보호 장치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은 교회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계급 제도를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교'가 장로 위에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가 교회가 유기체인 살아 있는 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교회는 인간 조직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계급 제도는 인간 조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므로 조직과는 어떠한 관련도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의 육신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기적으로 치료된다. 몸은 유기체이다. 그것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만져지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새사람이기도 하다. 우리의 육신 안의 생명이 질병에 대처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명은 어떤 문제는 대처할 수 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최선의 길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손을 대지 않고 하늘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몸 안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몸 안에서 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생명과 동떨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은 조직이며, 이것은 몸을 손상할 뿐 돕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을 제한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인도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유혹이다. 만일 교회 안의 인도하는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 자신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큰 승리이다. 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교회들 안의 문제와 어려움이다.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조직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몸에 손상을 준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제한하고 몸 안의 생명이 문제와 어려움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베었다면, 합당한 방식으로 손가락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손가락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손가락은 더 많이 손상될 것이다. 결국은 손가락의 베인 상처는 그의 몸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 치료될 것이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다. 교회의 역사는 조직이 교회를 손상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체적인 목표인 교회를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교회에게 유익할 것이다. 과거에 진리의 수호자들은 교회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에게 손상을 주는 실수들을 범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고 몸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유익이 될 것이며, 결코 교회에게 손실이나 손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이상이 우리의 보호와 균형이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서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만일 우리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게 손상을 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활히 여기셔서, 우리로 의견, 조직, 계급,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생활을 손상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손상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회생활을 보여 주기를 갈망하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74년, 1권, 교회 및 지방 교회들의 역사, 19-29쪽)*